

서산 대사 최우선으로

해남 대흥사 주지 재임한 범각 스님

“서산 대사의 제향을 중단적·국가적 사업으로 승격시키는데 진력하겠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의 제22대 주지에 범각 스님(사진)이 연임됐다. 스님은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명장 수여 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범각 스님은 “현재 조계종도들은 모두 서산 대사의 문하라 할 만큼 서산 대사는 조선시대 불교 범백을 잇는 중요한 분이였다. 일본 강점기 이후 단절된 서산 스님의 국가 제향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서산 대사 선양사업은 대흥사의 숙원 불사라고 말했다. 특히 서산 대사의 선양은 대사와 함께 활약했던 승군에 대한 추모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임진왜란 당시 5000여 무명의 승군은 낮에는 절을 지키고 밤에는 수군에 합류해 왜구를 물리쳤다.

범각 스님은 “의령군에는 매년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주일 동안 여는 ‘의령의 날’ 행사가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승군으로 활약한 5000여 무명의 승군은 존재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스님은 “임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통제사였지만, 서

산 대사는 ‘팔도’ 십육종도총섭이었다. 그런데도 TV에서 ‘불멸의 이순신’이 방영됐을 때에도 승군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범각 스님은 최근 조계종 불교사회문제연구소(소장 법안)에 의뢰해 8·9월 서산 대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최근 출간된 소설 《서산 대사》도 범각 스님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스님은 이 외에도 다양한 선양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범각 스님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이 세운 서산 스님의 유물관이 낙후돼 향운합승이 되질 않는다. 유물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현대적 설비를 갖춘 시설로 개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선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회향되려면 문중·문도·대중간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지 재임도 불사의 연속성을 위한 문도들의 결집이었다고 설명했다.

범각 스님은 대흥사 총무 시절부터 불교대학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호남불교의 지평을 바꾸는데 앞장서왔다. 스님은 한들거사회와 보살회 등 신도조직을 정비했다. 신도조직의 정비는 대흥사가 지역 복지의 무대에서 활동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 대흥사는 현재 해남군 종합복



조동섭 기자

지관, 어린이집, 장애인 뺑집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뺑집 ‘워킹맘 베이커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로 대흥사만의 복지시설 중 하나이다.

범각 스님은 “서산 대사 등 구국의 삼화상(서산·사명·영구 대사)은 임진왜란 당시 호국이 아닌 호법의 활동을 펼쳤던 선지식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각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7년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하고,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범각 스님은 총무원 사회국장 등을 역임하고 재심회계위원을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이번엔 총무원장·총회의장 탄핵시도

태고종 임시총양총회

태고종이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총회의장 영우 스님의 탄핵안으로 또 한 차례 내홍을 겪었다.

태고종은 7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 대불보전에서 제106회 임시총양총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제적 53명 중 41명의 의원스님들이 출석해 성원됐다.

회의가 시작되자 대은 스님은 긴급동의의 형식으로 ‘총무원장 및 중앙총회의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어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신상발언을 통해 탄핵안 처리를 주장하다 중회에서 퇴장 당했다.

격론을 벌였던 탄핵안 긴급동의는 제정한 대은 스님이 폐회를 앞두고 철회해 해프닝으로 그쳤다.

선양사특위 위원장 지담 스님은 “순천시장을 재산관리인에서 배제시킨 것은 조계종에 돌아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조계종이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선양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참여한 스님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선양사 주지 경담 스님은 “58년간 지속된 선양사 분규를 종식시킨 공로를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중회에서 이렇게 거센 비판이 일어날지 몰랐다”며 특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회는 중

회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경찰 수사 중인 동방대학원대학교 이사 추천안은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중회는 총무원장 인공 스님, 중앙총회의장 영우 스님, 중앙사정원장 윤곡 스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범암 스님 등 4명을 이사로 추천했다. 인공 스님은 당연직 이사장으로

대은 스님, 긴급동의의 발의

운산 스님도 강력히 주장

결국은 폐회 앞두고 철회

추천됐다. 하지만 윤곡 스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중단의 동방대학원대학교 운영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이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사 추천을 거부했다.

태고종 중앙총회는 이날 >총무원장 >총무원 부장 임명 동의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임기는 4년 단임제로 개정됐다. 종전 중앙총회를 통해 선출됐던 총무원장은 중앙총회의원과 지역별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회의원은 53명에서 61명으로 늘리기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이나는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극단적인 소신공양보다 환경운동을

7월 14일 환속한 승려가 문수 스님 부도탑 앞에서 분신한 사건을 두고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부루나 회원들은 분신한 승려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그러면서 “소신공양은 극단적인 방법이다” “소신공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소신공양대신 적극적으로 불교 환경운동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등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S씨는 《법화경》의 구절을 예로 들며 “일체중생회견보살은 삼매를 얻어 큰 환희심으로 소신공양했고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찬탄을 받았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마음아파하고 있지 않나. 소신공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J스님은 “소신공양도 좋지만 목소리 한번 내보지도 않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괜한 목숨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J스님은 “마지막 방법을 택하기 보다는 그간의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환경과교의 현장을 고발하고 연대를 통해서 목소리의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며 지을 스님을 예로 들었다. J스님은 “지을 스님은 수많은 보수인론들과 개발주의자들에게 못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해도 당당하게 단식도 하고 세상을 향해 고발했다. 그로 인해 불교의 환경운동이 발전했고 불교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소신공양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신중히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S씨는 “그분들이 유서를 남겼지만 ‘소신공양 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으니 제3자의 입장에서 ‘소신공양’이다,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극단적 방법을 택하게 한 현실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C씨는 “극단적인 방법만 만큼 그들의 의지가 관철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오히려 극단으로 치닫도록 내모는 그 원인을 속히 멈추도록 해야한다”며 “고통을 향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아속하다”고 말했다.



천태불자, 평창올림픽 성공 ‘일심발원’ 천태종 춘천 삼운사(주지 도웅)는 7월 21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회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김학송 천태종 중앙신도회장(국회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선 특임대사(前 강원도지사) 등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사진은 정산 스님(오른쪽 두번째) 등 내외빈이 평창올림픽의 성공개회를 기원하며 떡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모습. 노덕현 기자

인권활동한 스님 제재는 부당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던 론 소왓(Loun Savath) 스님이 캄보디아 교단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아 한국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집행위원장 정웅기)는 캄보디아 불교 종정 은 응엣(Non Nget) 스님에게 이번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뜻을 담은 항의서한을 7월 22일 발송했다.

론 소왓 스님은 장기화된 토지분쟁으로 쫓겨난 주민들을 지지하고 프놈펜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캄보디아 교단은 론 소왓 스님이 계율을 어겼다고 지적

내 사찰 거주 등을 금지시키라는 명령 서한을 프놈펜 승려 사무국에 4월 26일 발송했다.

캄보디아 종정 은 응엣은 명령서한에서 “론 소왓은 불교승려회의 공지 등을 위반했다. 또한 자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했기 때문에 불교 규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프놈펜 사원에 기거하는 것을 불허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불교 승려회 공지 제98호는 시위를 조장하는 모든 형태에 대한 승려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승려 포고문 제13호는 합법적인 승인없이 승려가 집회, 시위, 폭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론 소왓 스님은 승려로서 어려운 사

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론 소왓 스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캄보디아의 수많은 토지분쟁 현장에서 강제 퇴거로 괴로움을 당하는 시민들을 돕고 부패와 맞서 싸워 왔다. 그런 스님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사원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것은 비인권적이고 가혹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캄보디아 불교계가 론 소왓 스님에 대한 추방 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승적 박탈 등 일체의 제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박기범 만평



싸인볼에 불심당아... 이대호

조계종 홍보대사

출런 평평!!

세계 일등 도덕 강국과 세계일등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국민상 정립(國民像 定立)

중심이 없는 국민사회가 학교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우리의 국민두뇌가 <최고>의 자리로 인정 (책자 1장 66면) 받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인적적 특장(人情的 特長)이 <최고도>의 업무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정밀실험의 결과와 증거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검증(책자 1장 57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天賦)의 자질은 (일등나라의 창조)를 가능케 할 유력한 척도가 되며 ‘일등나라의 모습이 곧 우리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인식을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최고’가 ‘최고’가 아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일인당 국민소득(GNP)이 OECD국가(33개국)의 평균치(3만달러)에도 못미쳐 십수년째 2만달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타고난 ‘최고’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지는 이미 20년에 가까운데(한계에 봉착) 아직도 그 문턱 밑을 맴돌며 그 기나긴 세월간에 몇몇이나 건진다고 무슨 큰 대회만 있으면 눈이 벌개 유지하느라고 장 세월이 국력을 쏟아 부어 왔던 합리화된 모리정치들이 국민의 넋을 팔아 왔으며 실속없는 국민들은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도 ‘최고’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방해하는 우리의 국민풍토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살면 손해’라는 역리(逆理)에 익숙해진 국민들, 드러나지 않는 비리(非理)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국민상(OECD 국가 중 반부패지수 최하위)이 나라의 일등 국격을, 일등 희망을, 일등의 최선을 결코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학교교육에서(자율도덕력을 완성)하여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이루고 (책자에서 자세히 밝힘 - 특히 27면 ~ 36면의 교실교육 실태에서 방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 최고의 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국민상(國民像)을 교육하는 문제는 시급합니다.

국민의 정통가치관(국민상-한국사의 대동맥을 상징하고 국가의 척추가 될 기본가치관), 즉, 국민의 중심상(기준척도)을 정립함으로써 이나라의 오염된 온갖 선한 가치관들이 오용의 칼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며 좌파, 우파 등 분단과 대립상을 창도해온 정치 주도의 가치관 유린시대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논함)

이제 세계경제, 과학문명을 제패하는 창의력과 일등 복지사회의 모범을 함께 일으키게 할 우리의 <위대한 국민상(國民像)>이 바로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 잠자고 있음을 깨우쳐야 할 필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믿어 소승은 신분상의 틀을 넘어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완성을 통한 국민상 정립을 완성하는 공사(公事)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에게 교육의 문제가 우선합니다. 사회는 교육의 소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교육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국민이 장차 크게 아플것입니다. 일등민주를 요구하는 일등 국민두뇌의 불만은 깊어지고 중심(中心)없는 비도(非道)의 국심(國心)은 배신의 그늘에 안주하여 마침내 우리는 혼돈의 나락에서 대망(大望)의 확신을 잃은 국운을 분노와 후회의 시선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創意)가 세계의 국민 정신문화와 세계의 경제, 과학 문명을 선도(先導)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절망에 빠진 우국(憂國)의 교육지사(教育志士-교육에 뜻을 둔 각계의 사람들

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삼가 소승의 학교교육 현장 경험에서 얻은 치열한 번뇌로 쓴 책자 ‘無門에 피는 꽃’(학교교육 혁명서)은 세계 일등국을 실현하는 국민교육의 정도(正道)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속에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학교교육에 뜻을 둔, 원하시는 국민 부처님들께 무상(무로=택배비 포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大韓沙門 慧岩 승함

기도처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13(호병골길 2번지) 정혜사 전 화 : 031)536-1010, 휴대폰 : 010-4327-2134



• 제목 : 無門에 피는 꽃
• 규격 : 26cm x 19cm, 총 270면, 비매품
• 정규고등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교실에서 시작되는 교육 혁명서입니다.

•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시설에 있지 않으며 그 생명력은 최고의 교육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상 교육(國民像教育)의 토대위에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실천하는 세계최고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실 教育志士(설립이사장, 설립이사, 설립추진위원, 설립후원사, 설립후원회원)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소승의 역할은 설립이후 (3년내에)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두는 책임이 전부입니다. (책자 내용 참조)